

## 반사실 조건문적 <때문에> 이론에 대한 옹호\*

선 우 환\*\*

최근 이재호 교수와 한성일 교수는 필자의 책에서 제시된 반사실 조건문적 <때문에> 이론에 대한 반론들을 포함하는 논문들을 각각 발표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그들의 반론들이 흥미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공적이지는 못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여러 측면의 문제들이 오해에 기인한 것이거나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 안에서 충분히 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주요어】 때문에,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 설명, 선정, 이재호, 한성일

---

\* 본 논문의 핵심적 아이디어들은 2021년 7월 21일에 열린 한국과학철학회 정기학술대회 중 『때문에 - ‘때문에’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연구』에 대한 복 심포지엄에서의 이재호 교수와 한성일 교수의 발표들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필자의 책을 세심하게 읽고 발표를 해 준 발표자들과 그 밖의 참가자들에게 감사 را 드린다. 아울러 본 논문에 대해서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 را 드린다.

\*\* 연세대 철학과 교수, [hsunwoo@yonsei.ac.kr](mailto:hsunwoo@yonsei.ac.kr)

## 1. <때문에> 개념에 대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

필자는 최근의 책 『때문에 - ‘때문에’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연구』(이하, 『때문에』)에서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반사실 조건문적 분석을 제시하는 이론을 제안하고 발전시켰다.<sup>1)</sup> ‘때문에’-문장은 설명에 사용되는 핵심 문장이므로, <때문에> 개념을 분석하는 것은 설명적 유관성 개념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때문에> 개념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설명에 대한 이론으로서 접근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혼란들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기존의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들에서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 관계가 인과 개념을 규정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고, 설명 또는 설명적 유관성 개념은 인과 개념을 통해서 이해됨으로써,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 관계와 설명적 유관성의 관계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결되면서 매우 복잡한 분석이나 규정을 필요로 하면서도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는데,<sup>2)</sup> <때문에> 개념에 대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은 <때문에> 개념에 직접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최대한 단순한 방식의 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필자의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서 기본적 설명 문장 “P이기 때문에 Q이다”의 진리 조건의 핵심적 부분은 직관적으로 명백한 반사실 조건문 “~P였더라면 ~Q였을 것이다”로 주어진다. 그리고 대조적 설명, 비결정론적인 설명, 형이상학적 설명 등에 대해서 확장된 조건이나 보완적 규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이 보다 완성된 형태로 발전되었다. 예를 들어, 대조적 설명 문장 “S가 아니라 P이기 때문에 R이 아니라 Q”의 진리 조건의 핵심적 부분은 반사실 조건문 “~P이고 S였더라면 ~Q이고 R이었을 것이다”로 주어진다. 필자는 『때문에』에서 이러한

- 
- 1) 선우환 (2020). 필자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 ‘>’ 괄호를 사용한다. 이는 언어적 표현을 나타내기 위한 따옴표와 구분된다.
  - 2) 기존의 반사실 조건문적 인과 이론들과 이를 통한 설명 이론들의 고전적 예들로는 Lewis (1973), Lewis (1986b), Woodward (2003) 등이 있다. 반사실 조건문적 인과 이론들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을 Collins et al. (2004)에서 볼 수 있다.

이론이 다른 경쟁 이론들에 비해서 가지는 다양한 장점들을 논증했다.

보다 더 최근에 이재호 교수와 한성일 교수가 각각 필자의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대한 반론들을 포함하는 논문들을 발표했다.<sup>3)</sup>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재호 교수와 한성일 교수의 반론들이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여러 측면의 문제들이 오해에 의한 것이거나 이론 안에서 충분히 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sup>4)</sup> 이제부터 이들이 제기하는 여러 측면의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 2. 설명의 정도

이재호 교수는 <때문에> 개념에 대한 필자의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이 “설명 이론의 고갱이”를 담은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한 논거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은 정도를 허용하지 않는 이론이다. 왜냐하면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라는 것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정도를 허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sup>5)</sup>

그러나 우리는 설명(‘왜’-설명)은 ‘왜’-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질문에 대한 (표준적 형식의) 답은 ‘때문에’-문장이다. ‘때문에’-문장의 참, 거짓도 반사실 조건문의 참, 거짓처럼 정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때문에’-문장을 특별히 반사실 조건문으로 분석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 
- 3) 이재호 (2021), 한성일 (2021). 이 논문들의 초기 형태들은 앞의 각주에서 언급한 2021년의 한국과학철학회 정기학술대회 중 ‘『때문에 - ‘때문에’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연구』에 대한 북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
  - 4) 한성일 (2021)의 반론들 중에서 논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형이상학적 설명과 관련된 반론은 학술지 분량의 제약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형이상학적 설명의 문제들을 본격적 주제로 삼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겠다.
  - 5) 이재호 (2021), p. 102.

모호한 문장이어서 진리치에 정도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때문에’-문장의 참, 거짓이 정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장은 논증이 아니며, 논증에 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문장에 진리치의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으로서 제시된 ‘때문에’-문장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설명으로서 요구되는 대화 상대방의 이해 증진이나 통찰 획득을 충분히 돕지 못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그 설명은 만족스러운 설명이 아닐 것이고, 상대방의 이해 증진을 얼마나 많이 돕고 상대방의 얼마나 깊은 통찰을 돕는가 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즉 설명의 만족스러움의 정도가 반드시 의미론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 만족스러움의 정도가 **화용론적** 차원에서 다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설명 외적인” 문제가 되거나 “설명 이론의 고갱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설명 자체가 관심과 이해 등의 화용론적 개념들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의미론적 차원에서 똑같이 참인 ‘때문에’-문장들 중에서도 화용론적 조건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데 따라 더 좋은 설명을 제공하는 문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문장도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책 『때문에』의 6장에서 설명 문장의 화용론적 측면들을 논의하면서 ‘때문에’-문장의 적합성과 수용가능성의 조건들을 서술하는데, 문장의 적합성과 수용가능성은 당연히 정도를 허용하는 개념들이다.

게다가 **의미론적** 차이에 기인한 설명의 만족스러움의 정도 차이에 대한 여러 기준들도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왜’-질문에 대한 참인 정보들을 더 풍부하게, 더 세부적으로 포함하는 ‘때문에’-문장들일수록 더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왜’-질문에 답이 되는 ‘때문에’-문장에 대해서 그 문장이 왜 참인지를 설명하는 ‘때문에’-문장까지 제시함으로써 더 깊은 설명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이재호 교수는 필자의 설명 이론이 설명의 정도를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한다. 그중의 하나는 결정론적 설명이 비결정론적 설명보다 더 만족스럽다는 직관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다.<sup>6)</sup>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필자의 이론이

이런 직관을 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책 『때문에』에서 제시한 이론은 비결정론적 상황을 포괄하는 ‘P 때문에 Q’에 대한 조건을 이미 다음과 같이 포함하고 있다.<sup>7)</sup>

(C") “P이기 때문에 Q이다”가 참이다

iff (i) P는 참이다

(ii) Q는 참이다

(iii)  $\sim$ P였더라면 Q의 확률이 매우 낮았을 것(0에 가까웠을 것)이다.

(iv) P였더라면 Q의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1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 일반적 조건에서 결정론적 설명은,  $\sim$ P였더라면 Q가 가질 확률이 낮은 정도가 가장 커서 0에 가장 가까운 경우 즉 0인 경우에 해당하고, P였더라면 Q가 가질 확률이 높은 정도가 가장 커서 1에 가장 가까운 경우 즉 1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정론적 설명은 비결정론적 설명에 비해서 위의 일반적 조건을 더 강하게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더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비결정론적 설명들 사이에서도 위의 조건을 더 강하게 만족시킬수록 즉  $\sim$ P였더라면 Q가 가질 확률이 낮고 P였더라면 Q가 가질 확률이 높을수록 더 만족스럽다고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제시한 이론은 결정론적 설명이 비결정론적 설명보다 더 만족스럽다는 직관(그리고 비결정론적 설명들 사이에서도 만족스러움의 정도가 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직관)을 잘 포용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재호 교수가 필자의 설명 이론이 설명의 정도를 허용하지 못해서 문제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또 다른 사례는 다음과 같다.<sup>8)</sup> 치료되지 않은 매독을 가진 사람이 척추 마비를 겪을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어떤 환자가 치료되지 않은 매독을 가졌기 때문에 척추 마비를 겪는 경우가 있다. 즉 그 환자가 치료되지 않은 매독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척

6) 이재호 (2021), pp. 105-106.

7) 선우환 (2020), p. 97.

8) 이재호 (2021), pp. 103-105.

추 마비를 겪는 것을 설명한다. 그런데 치료되지 않은 매독에 덧붙여 특정 유전자 A를 가지는 사람이 척추 마비를 겪을 확률은 매우 높다고 하자. 그렇다면 치료되지 않은 매독과 특정 유전자 A를 통해서 그 환자의 척추 마비를 설명하는 것이 치료되지 않은 매독을 통해서 그 환자의 척추 마비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치료되지 않은 매독 및 유전자 A와 척추 마비 사이의 확률이 성향적 확률이라면, 즉 양쪽 사이의 관계가 비결정론적이라면, 앞의 비결정론적 상황을 포괄하는 조건을 이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서, 치료되지 않은 매독만에 의한 설명보다 치료되지 않은 매독 및 유전자 A에 의한 설명이 보다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치료되지 않은 매독 및 유전자 A와 척추 마비 사이의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나 인식적 확률이라면, 즉 양쪽 사이의 관계가 결정론적이라면, 다시 두 가지 가능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그 환자가 유전자 A를 갖지 않았더라면 그가 척추 마비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 보자. 이 경우 유전자 A를 통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만족스럽다. 그러므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입각해서도 치료되지 않은 매독만에 의한 설명보다 치료되지 않은 매독 및 유전자 A에 의한 설명이 보다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 환자가 유전자 A를 갖지 않았더라도 그는 척추 마비를 겪었을 것이라고 해 보자. 이 경우 유전자 A의 존재 여부는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척추 마비 여부를 좌우하지 않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많은 조건에서는 유전자 A를 추가적으로 갖는 것이 척추 마비를 겪게 만든 인자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설명적 유관성에 대한 추정을 인식적으로 정당화하겠지만, 사례의 주인공인 그 특정한 환자의 경우에는 유전자 A를 갖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척추 마비를 겪었을 것이다. 이 경우 “그 환자가 유전자 A를 가졌기 때문에 척추 마비를 겪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이재호 교수가 필자의 설명 이론이 설명의 정도를 허용하지 못해서

문제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또 다른 사례는 대조적 설명에 대한 사례이다.<sup>9)</sup> 대조적 설명에 대해 고전적 논의를 한 대표적인 철학자 립튼(P. Lipton)은 대조적 설명이 단순 설명보다 더 쉽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10)</sup> 즉 “R이기보다는 Q”(“Q rather than R”)(즉 ‘R이 아닌 Q’)에 대한 설명이면서 Q에 대한 설명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립튼이 이런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이 자신(피터)이 현대극을 선호하는 것이 지난 밤 <캔디드>보다는 <점퍼스>를 보러 간 것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점퍼스>를 보러 간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 (1)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는 <점퍼스>를 보러 갔다.
- (2)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는 <캔디드>를 보러 가기 보다는 <점퍼스>를 보러 갔다.
- (3)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는 집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점퍼스>를 보러 갔다.

즉 위의 단순 설명 문장 (1)은 거짓이면서 대조적 설명 문장 (2)는 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1)이 거짓이라는 립튼의 생각의 근거는 (3)이 거짓이라는 생각의 근거와 혼동되어 있다는 것을 『때문에』의 한 부분에서 지적했다.<sup>11)</sup> 현대극에 대한 피터의 선호는 그가 왜 **집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점퍼스>**를 보러 외출했는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단순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항이 모든 측면의 대조적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문장들을 보자.

- (4) 피터가 기분전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는 <점퍼스>를 보러 갔다.
- (5) 피터가 기분전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는 집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점퍼스>를 보러 갔다.

9) 이재호 (2021), pp. 107-109.

10) Lipton (1991), pp. 37-8.

11) 선우환 (2020), pp. 186-187.

(6) 피터가 기분전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는 <캔디드>를 보러 가기보다는 <점퍼스>를 보러 갔다.

이 경우에 립튼은 (4)가 참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두 대조적 설명 문장 (5)와 (6) 중에서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라는 점에서, (1)-(3) 문장들과 마찬가지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1)과 (4)는 대등하며, 그중 하나만 참이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다. (1)과 (4)의 차이는 (진리치보다는) 맥락 적 합성에 있어서의 차이로서 이해될 수 있다. 통상적인 맥락에서의 관습에 대해서 (4)는 적합하지만 (1)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의 관점에서는 (2)가 참이면 다음의 반사실 조건문도 참이다.

(7)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점퍼스>를 보러 가기보다는 <캔디드>를 보러 갔을 것이다.

그리고 (7)이 참이면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점퍼스>를 보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도 참이고, 따라서 (1)도 참이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이재호 교수는 (7)의 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피터가 어떤 선호도 없는 가능세계에서 그가 <캔디드>를 보러 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sup>12)</sup>

그러나 이재호 교수의 생각과 달리, 우리가 립튼의 사례에서 (7)이 참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가 (2)가 참이라고 상황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2)가 참이기 위해서는,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더 가까운 공연장에 대한 차순위 선호에 의해서라도 <캔디드>를 보러 갈 것이었다는 것(이 경우 <캔디드>가 더 가까운 공연장에서 공연하도록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립해야 한다.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지 않았더라도 (이른테면 현대극과 고전극 사이에 선호가 없었더라도) 피터가 어차피 <캔디드>가 아닌 <점퍼스>

12) 이재호 (2021), p. 108.



를 (예를 들어, 더 가까운 공연장에 대한 차순위 선호에 의해서) 보러 갈 것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2)를 엄밀하게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추론이 가진 직관적 호소력은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을 지지해 주는 많은 직관적 데이터 중의 하나에 속한다.

이어서 이재호 교수는 위의 반사실 조건문 (7)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리고 (1)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단순 설명 (1)은 대조적 설명 (2)에 비해서 덜 만족스러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서 제기한다. “대조적 설명은 단순 설명보다 더 만족스런 설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만족도에 대한 직관의 차이가 충분성 조건을 통해서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sup>13)</sup> 여기에서도 그는 이런 직관이 필자의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서는 설명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호 교수의 암묵적 전제와는 달리,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서 대조적 설명이 단순 설명보다 더 만족스러운 설명이라는 것은 잘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조적 설명에 해당하는 반사실 조건문은 단순 설명에 해당하는 반사실 조건문보다 더 풍부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설명 “P이기 때문에 Q”의 진리 조건의 핵심 부분이 “~P였더라면 ~Q였을 것이다”인데 반해서 대조적 설명 “P이기 때문에 R이 아니라 Q”의 진리 조건의 핵심 부분은 “~P였더라면 ~Q이고 R이었을 것이다”이다. 명백히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풍부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아래의 단순 설명 (1)과 대조적 설명 (2)을 다시 살펴보자.

- (1)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는 <점퍼스>를 보러 갔다.
- (2)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는 <캔디스>를 보러 가기 보다는 <점퍼스>를 보러 갔다.

위의 두 설명 문장은 각각 다음의 두 반사실 조건문을 핵심 부분으로 하는 진리 조건을 가진다.

---

13) 이재호 (2021), 같은 곳.

- (8)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점퍼스>를 보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 (7)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점퍼스>를 보러 가지 않고 <캔디드>를 보러 갔을 것이다.

(7)이 (8)보다 더 풍부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대조적 설명 (2)는 단순 설명 (1)보다 더 만족스럽다. (1) 즉 (8)이 참일 경우 설명항은 현실 세계에서 피터가 <점퍼스>를 보러 가는 것과 반사실적 세계에서 피터가 <점퍼스>를 보러 가지 않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든다는(difference-making) 내용뿐이지만, (2) 즉 (7)이 참일 경우 설명항은 현실 세계에서 피터가 <점퍼스>를 보러 가는 것과 반사실적 세계에서 피터가 <점퍼스>를 보러 가지 않고 대신 <캔디드>를 보러 가는 보다 특정한 대안 사이의 차이를 만든다는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담긴다.

결국 이재호 교수가 제시한 여러 사례들 모두에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은 설명의 정도를 허용하고 만족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설명 이론이 설명의 정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이 “설명 이론의 고갱이”를 담은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3. 설명과 지시적 투명성

이재호 교수가 필자의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이 “설명 이론의 고갱이”를 담은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또 다른 논거는 설명의 지시적 불투명성에 대한 것이다.<sup>14)</sup> 필자는 『때문에』의 한 부분에서 우드워드(J. Woodward)가 인과와 설명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sup>15)</sup> 우드워드는 어떤 인과 문장들을 설명 문장으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그는

14) 이재호 (2021), pp. 109-111.

15) 선우환 (2020), pp. 285-289.

(9) 그 전기 단락이 그 화재를 야기했다.

와 같은 인과 문장을 설명 문장으로 간주한다. 그러면서 그는 인과 문장의 지시적 투명성은 인정하지만, 설명 문장의 지시적 투명성을 부정한다. 그리하여 ‘그 전기 단락’과 ‘그 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같은 사건을 지시하더라도, (9)와 달리

(10) 그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그 화재를 야기했다.

이라는 문장은 설명으로서 불만족스럽다는 것이다.<sup>16)</sup> 우드워드와 보기에, 문장 (10)의 결함은 진리치에 있어서의 결함이 아니라 응용력, 유용성, 이해 등과 관련된 결함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결함은 설명 문장으로서의 결함일 뿐만 아니라 인과 문장으로서의 결함이기도 하다. 또한 우드워드와 같이 지시적으로 투명한 인과 문장을 설명 문장으로 사용한다면, 설명의 지시적 불투명성은 설명 문장의 진리치 차이에서 찾아질 수는 없고 그 응용력, 유용성, 이해 등의 차이에서 찾아질 수 있을 뿐이다. 즉 (10)과 같은 문장은 그것을 인과 문장으로 간주하건 설명 문장으로 간주하건, 응용력, 유용성, 이해 등과 관련된 결함을 가지는 것이지 거짓인 것은 아니다. 이를 인과 문장은 지시적으로 투명하고 설명 문장은 지시적으로 불투명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재호 교수는 우드워드에 대한 필자의 이런 비판을 오독하면서 “선우환의 때문에 문장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은, 그것이 지시적 투명성을 허용하는 한, 결코 설명 이론의 고갱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17)</sup>

그러나 이재호 교수가 오해한 것과 달리, 필자는 원래 책 『때문에』에서 명시적으로 “인과 문장과 달리 ‘때문에’ 문맥은 지시적으로 투명하지 않다”라고 말했다.<sup>18)</sup> 필자는 우드워드와는 달리 인과 문장을 설명 문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필자는 ‘때문에’ 문장이 ‘왜’ 질문에

16) Woodward (2003), p. 217.

17) 이재호 (2021), p. 111.

18) 선우환 (2020), p. 288.

대한 대답으로서 설명 문장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때문에’ 문장은 지시적으로 투명하지 않다. 설명 문장

(11) 그 전기 단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화재가 발생했다.

이 참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전기 단락’과 ‘그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같은 사건을 지시한다고 해서)

(12) 그 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화재가 발생했다.

가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 (12)는 거짓이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재호 교수는 필자가 “(10)과 같은 문장이 참인 한 설명일 수 있으며 (10)이 갖는 유용성의 결여는 설명 외적인 의미에서의 결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서 필자를 비판하지만,<sup>19)</sup> 이제 분명하겠듯이 필자는 (10)과 같은 문장은 아예 설명 문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드워드를 따라서 인과 문장이 설명 문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는 인과 문장이 가진 지시적 투명성을 설명 문장에 대해서도 부여해야 하는 불쾌한 귀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10)이 가진 결함은 그 문장의 진리치에 있어서의 결함이 아니라 모든 정보 전달 문장이 가질 수 있는 결함으로서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필자 자신의 이론에서 나오는 불쾌한 귀결은 아니다.

필자는 다른 사례에서 유용성은 떨어지지만 올바른 설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특정한 사건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그것’을 사용하여,

(13) 그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 화재가 발생한다.

와 같은 설명 문장을 발화한다고 하자. 이 문장 자체는 일반화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지만 참일 수 있다. 또한 이 문장은 맥락에 따라 최소한의 이해를 돕는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문장이 일반화 가능

---

19) 이재호 (2021), p. 110. 인용문 내의 문장 번호는 현재 본문에 맞게 수정했음.

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이 설명으로서의 유용성을 충분히 갖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문장은 여전히 올바른 설명 문장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유용성의 부족이 **설명 외적인 결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설명 문장의 진리치에 외적인 결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소한의 이해를 돕는 한에서 최소한의 설명일 수 있다.<sup>20)</sup>

결국 필자의 이론은 설명 문장의 지시적 불투명성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설명 문장은 인과 문장과 다르다. (12)와 같은 문장은 진리치에 있어서 결합을 가진다. 또한 (13)과 같이 유용성이 부족한 문장은 (진리치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설명으로서 결합을 가진다.

#### 4. 선점 사례에 대한 직관들: 이재호 교수의 경우

선점의 문제는 인과 개념의 분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 문제는 인과 개념에 대한 반사실 조건문적 분석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점차 드러났다. 반사실 조건문적 분석을 인과 개념에 대해서가 아니라 <때문에> 개념에

---

20) ‘때문에’ 문맥이 지시적으로 불투명하지만, 이는 그 문맥에서 나타나는 단칭서가 데 디토(de dicto)적으로 (또는 좁은 범위에서) 해석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그 문맥의 단칭어가 데 레(de re)적으로 (또는 넓은 범위에서) 해석되는 경우, 예를 들어 (12)가 “그 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화재가 발생했다”로 해석될 경우, ‘그 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같은 지시체를 가진 ‘그 전기 단락’으로 진리치 보존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는 양상 문맥이 지시적으로 불투명하지만, 데 레적으로 해석되었을 경우의 단칭어가 같은 지시체를 갖는 다른 단칭어로 대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반면 인과 문장(표준적으로 이해되는 사건 인과 문장)에 대해서는 데 레/데 디토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 인과 동사(‘야기하다’)는 문장 연산자가 아니라 (단칭어들을 연결하는) 2항 술어이기 때문이다. 익명의 심사자가 ‘때문에’-문장과 인과 문장의 데 레/데 디토 구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성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여기에 그런 설명을 추가했다.

대해서 적용하는 중요한 이점 중의 하나는 선점의 문제가 ‘때문에’-문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씨와 이씨가 모두 박씨의 심장을 향해 총알을 발사했고 김씨의 총알이 더 일찍 박씨의 심장에 도착해서 박씨의 심장을 파열시켰다고 하자. 이 경우, 김씨의 총알이 발사된 사건  $c_1$ 이 선점하는 사건으로서 이씨의 총알이 발사된 사건  $c_2$ 를 배제하고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는 사건  $e$ 의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인과 문장에 있어서 “ $c_1$ 이 ( $c_2$ 를 배제하면서)  $e$ 의 원인이다”에 대한 강한 직관이 있는 것과 달리, ‘때문에’-문장에 있어서는 그 보다는 “ $c_1$ 과  $c_2$ 중 최소한 하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e$ 가 발생했다”에 대해 더 분명한 직관이 존재한다. 이재호 교수도 우리가 이런 직관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만 “ $c_1$ 이 발생했기 때문에  $e$ 가 발생했다”와 같은 문장에 대해서도 그보다는 약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약한 직관에 대해서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sup>21)</sup>

필자도 “ $c_1$ 이 발생했기 때문에  $e$ 가 발생했다”와 같은 문장에 대해서도 “ $c_1$ 과  $c_2$ 중 최소한 하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e$ 가 발생했다”에 대해서보다는 약하지만 우리가 직관을 가지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갖는 직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화용론적 설명을 제안한다.

선언문 형식의 설명항은 대개 복잡하고 번잡해서 일상 대화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어렵다. 그럴 경우 덜 중요한 선언지를 설명항에서 생략하는 것이 편하기에 이는 대화 상황에서 관행이 될 수 있다. 충분 조건적 설명 이론에서도 설명항 속 여러 선언지들이 생략되고 맥락상 중요한 한 선언지가 하나의 설명항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마찬가지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서도 설명항 속 여러 선언지들이 생략되고 맥락상 중요한 한 선언지가 하나의 설명항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21) 이재호 (2021), pp. 111-112.

어떤 선언지를 생략하지 않고 남겨놓을지를 선택하는 여러 맥락적 기준이 있다. 첫째, 설명항은 일반적으로 그 설명항이 성립하는가 여부에 따라 피설명항이 성립하는가의 차이를 낳는다. 설명항이 여러 선언지로 이루어진 선언문일 때 그 중 한 선언지의 성립 여부가 다른 선언지들의 성립 여부보다 피설명항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더 안정적인 차이를 낳거나 더 확실한 차이를 낳거나 더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 그 경우 전자의 선언지만 남겨 놓고 나머지 선언지들을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둘째, ‘인과’는 중의적인데, 그중 한 개념인 <때문에> 인과 개념은 <때문에>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에, 원인을 제시하는 것은 흔히 ‘왜’-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된다.<sup>22)</sup> 이로부터 인과의 또 다른 개념인 과정 인과 개념에 입각해서 원인을 제시하는 것도 ‘왜’-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으로 여겨지기 쉽다. 많은 경우 그 두 개념의 적용 범위는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정 인과적인 원인을 유일한 선언지로 하는 설명항을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선점 상황에서 엄밀하게는 “ $c_1$ 과  $c_2$ 중 최소한 하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e$ 가 발생했다”만이 참이지만 “ $c_1$ 이 발생했기 때문에  $e$ 가 발생했다”에 대해서도 그보다 약하나마 직관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선점 사례들 중에서는 “ $c_1$ 이 발생했기 때문에  $e$ 가 발생했다” 형식의 문장에 대해서 일견 상당히 강한 직관을 우리가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있고, 이재호 교수는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대한 도전을 한다. 그런 사례들에 대한 직관이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22) 선우환 (2020) 10장 참조. 여기에서 필자는 ‘인과’가 <때문에> 인과 개념과 과정 인과 개념의 두 개념 사이에서 중의적이라는 것을 논했다. <때문에> 인과 개념에서는 “ $c$ 가  $e$ 의 원인이다”라는 것이 “ $c$ 가 발생했기 때문에  $e$ 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해된다. 반면 과정 인과 개념에서는 두 사건이 인과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두 사건이 (과정의 물리적인 내재적 특성에 의해서 적절히 규정되는) 인과적 과정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과 개념의 중의성은 Hall (2004)에서도 설득력 있게 논증된다.

이재호 교수가 응용하여 제시하는 한 가지 사례는 새먼(W. Salmon)이 처음 제시했던 존스의 피임약 복용 사례이다.<sup>23)</sup> 새먼의 사례에서 피임약을 복용한 남자인 존스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존스가 피임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임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은 올바르게 진단한다. 그렇다면 존스가 임신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재호 교수는 “존스의 임신하지 않음은 ... 존스가 남자라는 사실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존스의 임신하지 않음이 존스가 남자라는 사실에 반사실 조건문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호 교수가 지적하듯, “존스가 남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피임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임신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대해서 일견 특별한 어려움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는 어떠한 설명 이론에서도, 존스가 남자라는 사실을 (화용론적 조건에 의하지 않고 설명적 유관성 이론에 의해서) 존스의 임신하지 않음에 대한 설명항으로 선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충분 조건적 이론에서는, 존스가 피임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서 존스가 남자라는 사실만을 설명항으로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 두 사실은 동등하게 존스의 임신하지 않음에 대한 충분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통계적 유관성(S-R) 이론에서는, (존스가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배경이 주어졌을 때) 존스가 남자라는 사실은 존스가 임신하지 않을 확률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유관성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존스가 남자라는 사실을 존스의 임신하지 않음의 설명항으로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인과적 이론 중 과정 인과 개념을 이용하는 이론에서는, 존스가 임신하지 않음은 시공간 속의 사건이 아니며 존스가 남자임이 이 사건과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그 사례에 대한 우리 직관은 피임약 작용의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한

---

23) 이재호 (2021), pp. 111-112.



지식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 인과 이론의 방식으로 그 직관을 설명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인과적 이론 중 반사실 조건문적 인과 개념을 이용하는 이론에서는, 여러 복합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일단 반사실 조건문적 인과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존스의 임신하지 않음이 존스가 남자라는 사실에 반사실 조건문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어서 존스가 남자라는 사실을 설명항으로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조작가능성 이론에서는, 존스가 피임약을 복용한다는 변항으로부터 존스가 남자라는 변항을 구조적으로 차별화해서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존스가 남자라는 사실만을 차별적으로 설명항으로 선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존스가 남자라는 것을 존스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으로부터 차별화하는 데에는 설명적 유관성의 조건 외에 화용론적 조건이 필요하다.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의 관점에서는 앞에서 제시했던 화용론적 기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자면, 엄격하게는 우리는

- (14) 존스가 임신하지 않은 것은 그가 남자이거나 피임약을 복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야 올바르다.

- (15) 존스가 임신하지 않은 것은 그가 남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은 앞서의 화용론적 기준들에 입각해서, 대화 상황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설명이다. 우선 선언지들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편하고 번잡하기에 그중 덜 중요한 선언지는 생략

될 수 있다. 또한 존스가 남자라는 사실은 존스가 피임약을 복용하는 사실에 비해 존스가 임신하지 않는 것 여부와 관련해서 더 안정적이고 더 확실하며 더 큰 차이를 낳는다.

‘존스가 남자가 아니었다라면’을 가정할 경우 ‘존스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면’을 가정하는 경우에 비해서 현실과의 차이는 보다 더 심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가능세계에서 그가 여전히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을지는 의심스럽게 또는 불안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임신하지 않음과 남자임 사이에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직관은 여기에서 충분히 강하지 않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직관이 (15)에 대한 직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지지해 주는 사고실험으로, 존스가 실은 어린 아기였다는 추가 정보가 제시되었다고 하자. 그 경우 (15) “존스가 임신하지 않은 것은 그가 남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바르지 않다는 것은 보다 더 분명하다.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중요한 선언지를 추가함으로써, 존스가 남자라는 것은 유일한 선언지로 남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충분조건적 이론이나 과정 이론 등에 의해서는 설명되기 어렵다. 반면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은 일견 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상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재호 교수가 제시하는 또 다른 사례는 김재권으로부터 따온 다음과 같은 행위 설명 사례이다.

철수가 잠을 자다 깨서 우유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철수는 그 때 부엌 쪽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었고 무슨 소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갔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가 데이빌슨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철수가 부엌으로 간 것에 대한 설명은 그가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욕구가 그의 행위의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철수가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는 욕구를 갖지 않았다면 그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는 참으로 보이지 않는다. 철수가 그런 욕구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우유를 마시러 부엌으로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sup>24)</sup>

24) 이재호 (2021), pp. 113-114. Kim (2011), pp. 196-7 참조.

철수가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부엌에 가는 그의 행위의 (과정 인과적) 원인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날 밤 철수가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는 욕구를 갖지 않았더라도 그는 우유를 마시러 부엌으로 갔을 것이라고 하자. 그날 밤 철수는 왜 부엌으로 갔는가? 철수가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는 욕구를 가졌다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즉 설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견 그럴듯하다.

이 사례와 관련된 직관은 우선 앞에서의 제안에 따라서, 인과 개념의 증의성 때문에 과정 인과적인 원인 선언지를 전체 설명항으로 제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상황 설정에 따라, 철수가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는 욕구는 철수가 부엌에 가는 행위와 인과적 과정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욕구와 행위가 인과적 과정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을 경우, 그 욕구와 행위는 <때문에> 인과 관계도 맺는다. 즉 그 욕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발생했다는 관계도 맺는다. 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철수가 꼭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는 욕구를 갖지 않았더라도 (철수가 우유를 마시고자 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철수는 어차피 부엌으로 갔을 것이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꼭 그 특정한 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철수가 부엌에 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인과 개념과 과정 인과 개념은 흔히 (광범위하게 일치하는 외연을 가지기에) 혼동되고, 과정 인과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특정한 욕구를 설명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또한 이 사례에 대해서 반사실 조건문적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방식의 대안적 또는 보완적 설명도 가능하다. 애초의 설명을 요구했던 다음의 ‘왜’-질문을 다시 고려해 보자.

(Q) 왜 그날 밤 철수가 부엌으로 갔는가?

위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Q1) 왜 그날 밤 철수가 부엌으로 가는 사건이 **최소한 하나** 발생했는가?

(Q2) 왜 그날 밤 철수가 부엌으로 가는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 질문이 (Q1)의 방식으로 해석되어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될 때, ‘철수가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와 우유를 마시고자 하는 욕구 중 최소한 하나를 가졌기 때문에’라고 설명해야 한다. 질문 (Q)가 이를 뜻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할 경우, 선점 원인만을 설명함에 포함하고자 하는 직관은 분명히 매우 약화된다. 그날 밤 철수가 부엌으로 가는 사건이 최소한 하나 발생한 것이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직관적이다.

그 질문이 (Q2)의 방식으로 해석되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될 때에,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그 상황에서도 철수는 우유를 마시고자 부엌에 갔겠지만 그 사건은 다른 물리적 과정과 연결된 다른 양상의 사건이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건의 동일성 기준에 대한 어려운 철학적 논의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 그 반사실적 상황에서 발생했을 사건이 현실 상황에서의 그 특정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만으로도, 그 특정 사건의 발생이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직관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은 이재호 교수가 제시한 선점 사례들에서도 일견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론에 상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직관들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 5. 선점 사례에 대한 직관들: 한성일 교수의 경우

한성일 교수도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대해서 선점의 문제를 중심적 문제로 제기한다. 앞서 살펴본 이재호 교수가 선점의 표준적 사례들에 대한 기본적 직관에 있어서는 필자와 대체로 일치하면서 그 직관에 대

해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데 반해, 한성일 교수는 선점 사례들과 관련 해서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다른 직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위에서 살펴 보았던 표준적인 선점 사례를 놓고서 그가 놀랍게도 이 사례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직관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김씨와 이씨가 모두 박씨의 심장을 향해 총알을 발사했고, 김씨의 총알이 더 일찍 박씨의 심장에 도착해서 박씨의 심장을 파열시킨 사례를 다시 보자.

이 상황에서 김씨의 총알이 없었더라도 이씨의 총알이 날아와 어차피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을 것이라고 하자. 이 경우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이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직관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장

(16)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이 참이라는 직관은 희박하다. (16)의 참에 대한 그나마의 약한 직관은 더구나

(17) 김씨와 이씨 중 최소한 한 사람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가 보다 나은 대안적 설명으로서 제시될 경우에 더욱 약화된다.

한성일 교수는 아마도 이런 직관을 공유하지 않는 듯, 선점 문제가 반사실 조건문적 <때문에> 이론에 있어서도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16)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와 “이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가 모두 거짓이면서 (17) “김씨와 이씨 중 최소한 한 사람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가 참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상이한 직관을 가진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P 또는 Q 때문에 R'이란 답변은 참일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는 'P 때문에 R'이다가 참이거나 'Q 때문에 R'이다가 참이란 것은 분명히 알면서 전자가 성립하는지 혹은 후자가 성

립하는지 혹은 둘 모두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P 또는 Q 때문에 R이다'란 답변과 함께 'P 때문에 R이다'가 거짓이고 'Q 때문에 R이다'도 거짓이라고 덧붙인다면 우리는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그것이 참이란 분명한 직관을 가지지 않는다. 두 선언지 사실 모두가 해당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선언지들의 선언 사실이 해당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가?<sup>25)</sup>

한성일 교수는 여기에서 “P이거나 Q이기 때문에 R이다”로부터 “P이기 때문에 R이거나, Q이기 때문에 R이다”가 추론될 수 있다는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sup>26)</sup> 필자에게 이 원리는 직관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왜 이 원리를 그렇게 당연시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했다. 한 가지 가설은 그가 상당한 시간 동안 철학계를 지배해 온 충분조건적 설명 개념을 너무 깊이 내면화하고 있어서 이 원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P이거나 Q이면 R이다”와 “P이면 R이거나, Q이면 R이다”가 논리적으로 동치이므로, 충분조건 이론가들이 하듯 ‘때문에’를 (실질 또는 엄밀) 조건문 연결사로 읽으면, 이 원리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물론 일상의

25) 한성일 (2021), p. 134.

26) 한성일 교수는 최소한 이 원리를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인다. 한성일 교수는 이 인용문의 직후에 아마도 양자 현상이 결부된 경우와 같은 특수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이런 추론 원리의 예외의 “가능성이 없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양보하듯이 허용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고려하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한성일 (2021) pp. 134-135). 익명의 심사자는 그 문장에 근거해서 한성일 교수가 그런 추론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자 현상이 결부된 경우와 같은 특수하고 기이한 예외적 상황에서는나 그런 추론 원리의 예외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인 보통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추론 원리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런 추론 원리가 보통의 일반적 상황들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서의 한성일 교수의 비판(“P 또는 Q 때문에 R이다란 답변과 함께 'P 때문에 R이다'가 거짓이고 'Q 때문에 R이다'도 거짓이라고 덧붙인다면” “이 주장은 다소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참이 아니다”라고 하는)은 그 논점을 잃게 될 것이다.

‘때문에’가 충분조건 이론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다.

또 한 가지 가설은 “P이거나 Q이기 때문에 R이다”를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P 또는 Q 때문에 R이다”라고 읽으면서 은연중에 ‘P’와 ‘Q’를 명사 표현처럼 생각하면서 ‘때문에’를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의 구문 형식을 가진 것으로 새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그는 “P이거나 Q이기 때문에 R이다”를 “[P]라는 사실 또는 [Q]라는 사실 때문에 R이다”로 대치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P]라는 사실 또는 [Q]라는 사실 때문에 R이다”는 실제로 “[P]라는 사실 때문에 R이거나, [Q]라는 사실 때문에 R이다”를 의미한다.<sup>27)</sup> 따라서 그 문장으로 대치해서 생각할 경우, 위의 원리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P]라는 사실 또는 [Q]라는 사실 때문에 R이다”는 “P이거나 Q이기 때문에 R이다”와 다른 형식의 문장이다.<sup>28)</sup> 후자의 문장은 “P이거나 Q이다”를 설명항으로 하는 문장이며, P와 Q 둘 중의 하나가 설명항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장이 아니다.

한성일 교수가 어떤 이유에서 이 원리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든 이 원리가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직관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10명의 총살대원이 발포 명령에 따라 동시에 사형수에게 총을 쏘았고, 그 사형수가 동시에 10발의 총알을 모두 심장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자. 그 경우에 그 10명의 총살대원 갑식, 을식, 병식, 정식 등 어느 특정한 누구에 대해서도, **바로 그** 특정한 사람이 총을 쏘았기 때문에 그 사형수가 그날 거기에서 사망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총살대원 중 **최소한** 한 사람이 총을 쏘았기 때문에 그 사형수가 그날 거기에서 사망했다는 것은

27) 이는 “철수 또는 영희의 어머니가 학교에 왔다”가 “철수의 어머니가 학교에 왔거나, 영희의 어머니가 학교에 왔다”를 의미하는 것보다 유사하다.

28) 또한 필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 존재론을 전제하여 말하면, “[P]라는 사실 또는 [Q]라는 사실 때문에 R이다”는 “[P]이거나 [Q]라는 사실 때문에 R이다”와 다른 형식의 문장이다. 인용문의 끝 부분의 ‘선언자들의 선언 사실’에 대한 언급은, 한성일 교수가 이와 같은 혼동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추측을 하게 하기도 한다.

분명하다. 즉

- (18) 총살대원 갑식이 총을 쏘았기 때문에 사형수가 그날 사망했다.
- (19) 총살대원 을식이 총을 쏘았기 때문에 사형수가 그날 사망했다.
- (20) 총살대원 중 최소한 하나가 총을 쏘았기 때문에 사형수가 그날 사망했다.

에서 (18), (19) 등의 문장들은 모두 거짓이면서 (20)이 참일 수가 있다.

또한 다른 예를 들어서,

- (21) 지구에 생명체가 (최소한 하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특별한 행성이다.

는 참이라고 여겨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행성들에는 생명체가 없으므로,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특별한 행성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항의 선언지 또는 존재예화에 해당하는 문장을 설명항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여겨진다.

- (22) 지구에 (생명체인) 김철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특별한 행성이다.
- (23) 지구에 (생명체인) 바둑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특별한 행성이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가 특별한 행성이라고 해서, 그 중의 어느 특정한 개별 생명체에 대해서이건 그 생명체 개체 때문에 지구가 특별한 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개체이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특별한 행성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당치 않는 오만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선언



문장이나 존재 문장이 설명항이라고 해서 선언지나 존재예화 문장 중 어느 하나가 설명항이 되어야 하는 원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sup>29)</sup>

한성일 교수는 그의 논문의 다른 부분에서는 앞에서의 선점 사례와 관련해서, (16)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대신에 자신의 입장에 더 유리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대처해서 선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sup>30)</sup>

(24)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문장 (16)에 대한 직관과 달리, 이 문장에 대한 직관은 어느 정도 강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왜 (24)는 (16)과 달리 그럴듯하게 들리는가? 이런 직관에 대해서도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가는 앞 절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을 위해서 다른 사례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겠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철수는 2시 전에 버스를 타야 한다. 2시 전에 버스 두 대 즉 1호차와 2호차가 정류장에 (각각 1시와 1시30분에) 정차했는데, 철수는 그 중 1호차를 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의 두 문장 모두가 각각 그럴듯하게 참인 것으로 여겨진다.

---

29) 이와 같은 과잉결정 사례들은 “P와 Q 중 최소한 하나가 성립하기 때문에 R이다”가 성립하면서도 “P이기 때문에 R이다”와 “Q이기 때문에 R이다”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직관적으로 보다 분명한 사례들이다. 또한 대개 선언지들 또는 존재예화 문장들의 수가 많을수록 이와 같은 직관은 보다 분명해진다.

30) 한성일 (2021) pp. 133-134. 원문에서 사용한 (24)에 해당하는 문장은 “김씨가 저격한 총알이 박씨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김씨의 저격이 성공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이지만, 간단히 쓰기 위해서 편의상 약간의 수정을 했다. 이 부분의 바로 앞부분에서 한성일 교수는 김씨의 총알이 비의도적으로 발사되었을 때에는 (16)의 참에 대한 직관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직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

- (25) 1호차와 2호차 중 최소한 하나가 정류장에 정차했기 때문에 철수는 **늦지 않게** 버스를 탔다.
- (26) 1호차가 정류장에 정차했기 때문에 철수는 버스를 탔다.

피설명항에 ‘늦지 않게’가 빠지면 원칙적으로는 피설명항이 ‘철수가 늘건 늦지 않건 간에 버스를 탔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더 나중에 버스를 타는 경우의 가능성까지도 허용해야 하고, 설명항의 선언지가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25)의 설명항보다도 (26)의 설명항이 하나 더 적은 선언지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일 만하게 여겨진다. 이는 (26)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철수가 버스를 타는 그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피설명항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두 문장 모두가 각각 그럴듯하게 참인 것으로 여겨진다.

- (27) 김씨의 총알과 이씨의 총알 중 최소한 하나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그날 어느 시점에** 파열되었다.
- (24)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여기에서도 ‘그날 어느 시점에’를 빼면, 보다 더 일반적인 피설명항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서 피설명항이 이해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24)에 대한 직관을 설명한다. (24)의 피설명항 문장인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를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그 문장은 박씨와 그의 심장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문장은 어느 시점에서이건 어떤 방식으로건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는 일이 최소한 한 번 발생하면 참이 된다. 그 문장을 이런 진리 조건을 가지는 문장으로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문장을 일반적인 피설명항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sup>31)</sup> 그

---

31) (24)의 피설명항을 일반적인 피설명항으로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익명의 심사자의 제안에 따라서 여기에 그 설명을 덧붙였다.

러나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런 특정한 사건을 주목하는 보통의 맥락에서, 언어와 화자와 청자들은 (24)에서 요구되는 설명이 그 특정한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특정 사건의 발생은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하는 사건에 반사실 조건문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럴듯하다. 박씨 심장 파열 사건이 이씨의 총알의 관통에 의해 일어났더라도 원래의 그 특정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일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건의 동일성 기준은 불명확하고, 그만큼 선언적 설명함이 요구된다는 직관은 약화된다.<sup>32)</sup>

또한 (24)가 특히 (16)에 비해서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16)에서는 설명항에서 서술되는 사태와 피설명항에서 서술되는 사태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 때문에 피설명항을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강제하는 경향이 적은 데에 반해, (24)에서는 둘이 서로 시공간적으로 맞닿아 있음으로써, 피설명항의 내용을 어느 시점에든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다는 일반적 내용으로 해석하기를 어렵게 만들고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하는 사건과 시공간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 특정한 사건의 발생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도록 강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입각해서 특정 사건 발생의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 관계를 서술하는 참인 문장으로 (24)를 해석할 수 있다.

한성일 교수는 논문의 다음 부분에서 (27)과 유사한 다음의 문장을 고려하면서 그 문장이 결국 (24)로 환원된다는 논의를 펼친다.<sup>33)</sup>

32) 반면에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그 날 어느 시점에 파열되었다”(또는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는 일이 그 날 어느 시점에 발생한 것은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이다”)와 같이 피설명항에 ‘그 날 어느 시점에’를 놓아둔 채 선점 선언지만으로 이루어진 설명항을 사용할 경우 그 문장이 참이라는 직관은 매우 약화된다. 이는 ‘그 날 어느 시점에’가 피설명항이 특정 사건의 발생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3) 한성일 (2021), p. 135. 이 문장은 (27)에서 ‘그 날 어느 시점에’를 뺀 문장이다. 이후 논의에서 ‘<p>’는 ‘p라는 명제’, ‘[p]’는 ‘p라는 사실’을 뜻한다.

- (28) 김씨의 총알과 이씨의 총알 중 최소한 하나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그는 문장 (28)은 한 선언사실이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사실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다> 또는 <이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다>]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여기에서 <이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다>는 거짓이기 때문에 (28)로부터 다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다]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그리고 이는 (24)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특정한 사실 존재론을 전제하고, ‘때문에’를 그 사실 존재자에 대한 관계 술어인 것처럼 이해한다. 그리고 “[P 또는 Q] 때문에 R” 형식의 문장으로부터 Q가 거짓일 경우 “[P] 때문에 R” 형식의 문장을 추론할 수 있다는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Q가 거짓일 경우, [P 또는 Q]라는 사실과 [P]라는 사실이 동일한 사실이라는 방식의 사실 개념에 입각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sup>34)</sup>

그러나 우선 ‘때문에’라는 표현은 관계 술어가 아니라 연결사이다. ‘때문에’는 사실 존재자들에 대한 단칭어들을 연결하지 않고, 문장들을 연결한다.<sup>35)</sup> Q가 거짓이라고 해서 “P이거나 Q이기 때문에 R” 형식의

34) 익명의 심사자는 한성일 교수의 위의 추론 원리가 이와 같은 사실 개념에 근거해 있을 것이라는 해석에 반대하여, “사실, 이런 해석 하에선 한성일 교수는 너무나 기초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거나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해석은 자비의 원리에 입각한 (즉 상대방의 입장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한) 해석이다. 이 근거조차 없다면 위의 추론 원리는 아무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그 추론 원리가 (그 근거의 문제와는 별도로) 옳지 못하다는 필자의 아래의 논증은 한성일 교수가 그 추론 원리를 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런 해석과 상관없이 그 추론 원리 자체에 적용되므로, 이 해석이 옳은가 하는 것은 필자의 대답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35) 우리가 때로 편의상 “P이기 때문에 Q” 형식의 문장을 사용하면서 마치 사실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를 진지하게 간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장과 “P이기 때문에 R” 형식의 문장에서 두 종속절의 내용이 같아진 다거나 서로 추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설사 어떤 사실 존재론 을 도입하고, 일상언어의 ‘때문에’라는 연결사에 상응하는 관계 술어를 도입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Q가 거짓일 경우에는 [P 또는 Q]라는 사실과 [P]라는 사실이 동일한 사실이라는 식으로 사실을 이해하는 종 류의 특정한 사실 존재론은 그런 용도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sup>36)</sup> Q가 거짓이더라도 <P 또는 Q>라는 명제와 <P>라는 명제는 다른 내용을 가 지고 있고, 그 다른 내용은 설명적으로 유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시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자. 영수가 늘 집에만 있어서 영수 엄마가 걱정스러워하다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 있기를 간 절히 원했다. 영수네 집은 안방, 거실, 부엌, 화장실의 네 공간으로 이 루어져 있다. 영수 엄마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영수가 여전히 집 안에 그중에서도 부엌에 있었다. 그래서 영수 엄마가 슬퍼했다. 이 상 황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 문장이 참이다.

(29) 영수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영수 엄마는 슬퍼했다.

그런데 그 집의 구조상 [영수가 집에 있다]라는 사실은 [영수가 안방에 있거나 거실에 있거나 부엌에 있거나 화장실에 있다]라는 사실과 일치한 다. 또한 영수는 부엌에 있으므로, “영수가 안방에 있다”, “영수가 거실 에 있다” 등의 다른 선언지들은 거짓이다. 그러면 한성일 교수가 암묵적 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사실 개념에 따르면 이 사실은 [영 수가 부엌에 있다]라는 사실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면 한성일 교수의 것 과 같은 방식의 추론에 의해서 다음의 설명 문장도 참이어야 할 것이다.

(30) 영수가 부엌에 있었기 때문에 영수 엄마는 슬퍼했다.

36) 그리고 역으로 만약에 그것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만한 종류의 사실 개념 이라면, 그것은 ‘때문에’를 사실 단칭어를 연결하는 술어로 이해하고자 하 는 인위적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상상된 상황에서 (30)은 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영수가 부엌에 있었다”는 “영수가 집에 있었다”와 달리 설명적으로 유관하지 않다.<sup>37)</sup>

한성일 교수는 그 다음에 (24)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가 거짓이라고 보는 필자의 생각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한다.<sup>38)</sup> 필자는 『때문에』에서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박씨의 심장은 어차피 파열되었을 것이므로 ‘김씨의 총알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sup>39)</sup> 그는 그런 추론의 근거에 대해서 캐묻는다.

필자의 이러한 생각은, 다음에 나오는 (I)로부터 (II)를 이끌어내는 직관적인 추론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관찰에 근거한다.

(I) P가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Q였을 것이다

(II) “P이기 때문에 Q이다”가 참이 아니다.

P가 (현실에서처럼) 성립했든 (현실과 달리) 성립하지 않았든 Q가 어차피 성립한다면, 우리는 P가 Q에 설명적으로 유관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 한성일 교수는 그 추론의 근거에 대해서 추정된 후에, 그런 근거가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을 포함하여서 논점을 선취할(선결문제를 요구할) 우려를 제기한다.<sup>40)</sup> 그러나 필자로서는 개별 상황에서 (I)로부터

37) 이와 같은 반론은 한성일 교수가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 특정한 사실 개념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더라도, (29) 또는 “영수가 안방, 거실, 부엌, 화장실 중의 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영수 엄마는 슬퍼했다”와 영수가 안방, 거실, 화장실에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부터 (30)이 추론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P이거나 Q이기 때문에 R” 형식의 문장으로부터 Q가 거짓일 경우 “P이기 때문에 R” 형식의 문장을 추론할 수 있다는 원리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38) 한성일 (2021), pp. 136-144.

39) 선우환 (2020), p. 141.

40) 한성일 (2021), pp. 137-138.

(II)를 이끌어내는 직관적 추론 성향이 오히려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의 근거가 되는 언어적 직관의 데이터 중의 하나이다. 그런 언어적 직관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일반 원리를 그 근거로서 요구할 경우에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필자는 당연히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과 같은 일반 이론을 그 직관적 추론의 대전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sup>41)</sup>

이와 유사한 상황을 우리는 직설법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의 의미론 논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P이거나 Q”로부터 “P가 아니면 Q”를 이끌어내는 직관적 추론인 ‘선언조건문 추론(or-to-if inference)’은 직설법 조건문이 실질 조건문(material conditional)과 같은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sup>42)</sup> 만약 어떤 철학자가 이 추론의 근거에 대해서 묻고 그 근거에 직설법 조건문에 대한 실질 조건문 분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논점을 선취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 그것은 논의의 순서를 오해한 기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성일 교수는 이와 같은 추론의 원리(그는 이를 ‘어차피-원리’라고 부른다)를 여러 형태로 정식화하고 나서, 그런 원리가 반직관적 귀결을 가진다는 논의도 전개한다.<sup>43)</sup> 그러나 그가 반직관적 귀결로 의도하고 이끌어내는 귀결들은 필자로서는 그와 필자 사이의 직관의 큰 격차를 보여 줄 뿐이다. 예를 들어, 그는 사람이 죽을 때 항상 자연사의 경우에도 심장이 파열되는 가능세계를 상상한 후, 그 가능세계에서 이씨는 박씨를 저격하지 않고 김씨만이 박씨를 저격하여 그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고 결국 박씨의 심장은 파열된 상황을 설정한다. 그는 이 상황에서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필자의 추론의 원리와 상충한다는 반론을 제기한다.<sup>44)</sup>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적 평형이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즉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이 다른 데이터들에 의해서 추가적 지지를 받을 때,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은 거꾸로 이 추론적 직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지를 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42) 이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Bennett (2002), 선우환 (2008) 참조.

43) 한성일 (2021), pp. 138-142.

44) 한성일 (2021), p. 139.

그러나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이다”가 얼핏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는 원래의 표준적 선점 사례에서의 같은 문장 (24)에 비해서 더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이미 (24)가 통상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설명을 했다. 이 가능세계 맥락에서의 같은 문장 “박씨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이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설명을 할 수 있다. 그 문장도 그것이 참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그것은 특정한 박씨 심장 파열 사건의 발생을 피설명항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그러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박씨 심장 파열 사건이 어차피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나중 시점에 다른 양상으로 박씨의 심장이 파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반사실적인 상황에서의 파열 사건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심장 파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그 만큼 그 문장은 참인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피설명항을 특정 사건의 발생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말 보다 일반적인 내용을 가진 “박씨의 심장이 (어느 시점에서이든가 한번) 파열된다”로 이해한다면, “박씨의 심장이 (어느 시점에서이든가 한번) 파열된 것은 김씨의 총알이 박씨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이다”는 그 상상된 가능세계의 상황에서 분명 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서 인간은 모두 죽을 운명에 있다. 최씨가 치명적 말기 암으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하자. 그가 이른 시기에 죽게 된 것은 그의 불행한 질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결국은 죽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언젠가 결국) 죽는 것은 그가 암에 걸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sup>45)</sup>

45) 한성일 교수는 그의 논의에서 피설명항을 사실 존재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설명한다’가 관계 술어이기 때문에 사실과 같은 두 대상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필자가 편의상 ‘설명항’과 ‘피설명항’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때문에’-문장의 종속절과 주절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피설명항을 문장 또는 명제로 간주한다. 피설명항인 문장이나 명제에서 사건이 언급될 수는 있는데, 물론 사건은 사실과는 다르다.



한성일 교수는 또한 필자의 원리에서 피설명항이 어차피 성립했는지 고려하는 것을 ‘어차피-고려’라고 부르면서, 어차피-고려가 방지 판단(예를 들어 박씨의 심장 파열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에 필요한 것이고 <때문에> 판단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논의도 한다.<sup>46)</sup> 그러나 방지 판단과 <때문에> 판단은 경쟁적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긴밀한 연결 관계에 있다. 사후에 <때문에> 판단을 하는 것은 흔히 어떤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따져 보는 목적을 가진다. 어떤 결과가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어차피 발생할 것이었다면, 그 행위 여부로 그 결과를 좌우할 수도 없었고 그 결과에 대한 (그 행위 때문이라는)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어차피-고려가 방지 판단에 필요하다는 것은 어차피-고려가 그 판단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 <때문에> 판단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낸다.

결국 선점 사례와 관련된 한성일 교수의 여러 논의들은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이 선점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 6. 설명으로서 부적절한 ‘때문에’-문장들

필자는 책 『때문에』에서 <때문에> 개념이 재귀적(reflexive)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즉 “P이기 때문에 P이다” 형식의 문장이 사소하게 개념적으로 참이라고 주장했다.<sup>47)</sup> 이 문장은 참이지만 너무 사소하게 참이어서 정보 제공에 사용되기에 유용하지 못하다는 결함을 가진다. 그리고 그 점에서 ‘때문에’라는 표현은 정보 제공의 유용성을 그 진리 조건 안에 포함하는 표현인 ‘설명한다’의 경우와 다르다. “P는 P를 설명한다”는 거짓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호 교수는 <때문에>의 재귀성에 대한 필자의 이런 입장과 이에 대한 논의를 비판하면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이 “P이기 때문에 P이

46) 한성일 (2021), pp. 142-143.

47) 선우환 (2020), pp. 222-225.

다”를 참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일상 언어의 ‘때문에’의 적절한 의미 분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48)</sup> 이재호 교수는 “P이기 때문에 P이다”가 거짓이라는 직관을 우리가 가진다고 보면서, 그 직관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필자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선 강조해야 할 것은, “왜 P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P이기 때문에 P”라는 대답이 거짓이라기보다는 하나 마나 한 대답이고 일종의 동어반복이기 때문에 쓸모없고 부적절한 대답이라는 직관을 우리가 이론과 상관없이 가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많이 양보해서, “P이기 때문에 P”가 뻔한 참이라는 직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P이기 때문에 P”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경향성(또는 직관)은 그것이 쓸모없고 부적절한 문장이라는 것에 의해서 잘 설명된다. “P이기 때문에 P”를 거짓이라고 보아야 할 필연성은 없다.

이재호 교수가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필자는 “P이기 때문에 P”가 참이라는 것을 이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여야 할 필요가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론으로부터 독립적인 직관에 의해서도 지지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필자는 “P이기 때문에 P”가 참이라는 것을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대한 논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대한 논거로 사용되는 것은 보다 익숙한 다른 사례들이고 “P이기 때문에 P”는 그보다는 직관이 불분명할 수 있는 제한적 사례(limiting case)이다.

필자가 “P이기 때문에 P”가 참이라는 것을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사용하면서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다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의해서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논점을 선취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변증적 상황(dialectics)을 오해하는 것이다. 필자는 “P이기 때문에 P”가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대한 반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 문장을 거짓이라고 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에게 “P이기 때문에 P”가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필자는 그것이 참일 수 있음(그것이 참이면서도 사람들

---

48) 이재호 (2021), pp. 116-118.

이 그것에 대해서 흔히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이면 되고, 필자가 책 『때문에』에서 전개한 논의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이다.

필자는 참이지만 너무 사소하게 참이어서 정보 제공의 유용성이 없는 다른 문장의 예로 다음의 문장을 사용했다.<sup>49)</sup>

(31) 케네디의 살해자가 케네디를 살해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호 교수는 아래의 문장 (32)로부터 지시적 투명성에 의해서 (31)을 끌어냄으로써 (31)의 참에 대한 ‘좋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P이기 때문에 P”의 참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한다.<sup>50)</sup>

(32)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살해했다.

그러나 실은 (31)도 그런 설명이나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31)은 (32)보다 훨씬 자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32)와 같은 것이 참이라는 것을 모르더라도 (31)이 참이라는 것은 그 문장 형식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설명된다. 마찬가지로 “P이기 때문에 P”의 참도 지시적 투명성을 이용한 추론과 같은 그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형식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필자는 또한 “P이기 때문에 P”가 참이지만 쓸모없어서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논증이 타당하지만 쓸모없어서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는 것과의 유사성을 지적했다.<sup>51)</sup>

P

---

P

---

49) 선우환 (2020), p. 222.

50) 이재호 (2021), p. 116.

51) 선우환 (2020), p. 224.

이에 대해서 이재호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폈다.

이 유비 역시 “P이기 때문에 P”의 참을 보이는데 유용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논리학에서의 ‘타당성’이라는 개념은 일상어 ‘타당성’의 의미 분석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sup>52)</sup>

그러나 이는 타당성과의 유비를 한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그 유비의 목적은 “P이기 때문에 P”가 참이라는 것을 보이는 데에 있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참이면서도 쓸모가 없어서 받아들일 만하지 않을 수 있는가의 측면에 있어 유사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P이기 때문에 P”가 받아들일 만하지 않으면서도 참일 수 있음을 설명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런 언어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논지와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전문 용어인지 일상 언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논리학에서의 ‘타당성’이 전문 용어여서 유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긴다면, ‘그러므로’를 연결사로 사용하는 복합 문장을 예로 들 수도 있다. “P 그러므로 P”는 사소하게 참인 문장이라고 여겨진다. 또는 최소한 그렇게 여기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그러면서도 명백히 그 문장은 받아들일 만하지 않은 문장이다.

결국 “P이기 때문에 P이다” 형식의 문장에 대한 이재호 교수의 논의는 이 문장과 관련해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이 결함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고, 필자의 논의에 대한 그의 비판들은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

이재호 교수는 이어서 “P V Q이기 때문에 P이다” 형식의 문장을 통해서도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sup>53)</sup>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의하면 “P이기 때문에 P이다”뿐만 아니라 임의의 선언지 Q에 대해서 위의 형식의 문장도 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문장은 참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P V Q이기 때문에 P이다” 형식의 문장이 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직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이런 형식의 문장이 설명으로 제시되었을 때에 이는 매우 부적절한 설명이다. 이는 “P이기 때문에 P

52) 이재호 (2021), p. 117.

53) 이재호 (2021), pp. 118-120.

이다”가 가지는 설명으로서의 부적절성(즉 유용한 정보를 담지 않음)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부적절성을 가진다. 그것은 “P이기 때문에 P이다”가 이미 참이 되기에 충분한데도, 참이기 위해서 설명항에 선언지 Q를 덧붙여 약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대화적으로 함의함으로써 우리를 오도시킨다. 그러나 “P V Q이기 때문에 P이다”가 꼭 거짓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이거나 플라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이다”는 설명으로서 부적절하지만, 분명하게 거짓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sup>54)55)</sup>

비슷한 사례에 대한 이와 같은 화용론적 설명의 필요성은, 설명적 유관성을 (원초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잘 알려진 설명 이론들 모두에서 나타난다. 충분 조건적 이론에서는, P가 R에 대한 충분조건임으로써 설명적으로 유관할 때에, 설명적으로 무관한 조건 Q를 연언지로 덧붙인 “P & Q 이기 때문에 R”도 참이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통계적 유관성 이론과 같은 확률적 설명 이론에서는, P가 R의 확률을 높임으로써 설명적으로 유관할 때에, 설명적으로 무관한 조건 Q를 선언지로 덧붙인 P V Q와 연언지로 덧붙인 P & Q가 설명적으로 유관하다고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과적 설명 이론에서는 피설명항에 대한 인과적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항에 설명적으로 무관한 조건을 선언지나 연언지로 덧붙였을 때에도 여전히 설명항이 피설명항에 대한 인과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명적으로 무관한

54) 이재호 교수가 하듯 이 문장을 “P V Q이기 때문에 P이다” 형식이 아닌 “P인 것은 P V Q이기 때문이다” 형식으로 제시하면 더 틀린 것으로 들리지만, 그것은 그 후자의 형식이 P에 대한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듯한 함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55) 익명의 심사자는, “논리적 함축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때문에’-문장이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의 예측과 불일치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논리학 수업의 교수자가 학생에게 “P & Q이기 때문에 P가 참이 됩니다”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 함축 관계를 반영하는 위와 같은 ‘때문에’는 설명적 의미의 ‘때문에’가 아니라 논증적 의미의 ‘때문에’이다. 그리고 『때문에』의 1장에서 분명히 했듯이(선우환 (2020) pp. 21-23),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설명적 의미의 ‘때문에’에 국한된다.

불필요한 논리적 첨가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화용론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특유한 것이 아니다.

이재호 교수는 이 사례에서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과 형이상학적 의존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P V Q이기 때문에 P이다”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P V Q는 P에 형이상학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반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P V Q가 P에 형이상학적으로 의존한다는 생각은 그렇게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P가 참이라는 것은 P V Q가 참이도록 하는 데에 논리적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별개의 두 사실 사이의 형이상학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단지 ‘V’라는 연결사가 “P V Q”라는 문장(또는 명제)의 두 선언지 중 하나가 참이면 참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이 아닌가? 그것이 두 사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두 문장이나 명제 사이에 형이상학적 의존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도한 형이상학에 개입하게 된다.

또한 이재호 교수는 “P이기 때문에 P”에 대해서도, “설명의 구조와 (형이상학적) 의존의 구조를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설명 문장으로서 참일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sup>56)</sup>

그러나 “P이기 때문에 P”가 참이라면 P와 P 사이에 형이상학적 의존의 관계가 있어야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형이상학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므로, 두 문장이 ‘때문에’ 연결사로 참되게 연결될 수 없다는 논증은 과도한 형이상학적 배경 전제들 하에서만 설득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P 그러므로 P”에 대해서도, 결론은 전제에 ‘형이상학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P 그러므로 P”는 거짓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

<때문에>가 어떤 의미에서 형이상학적 의존의 구조를 요구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가 달랐더라면 나머지도 달랐을 것이라는 방식으로 해명될 수 있는 한에서의 형이상학적 의존의 구조이고 그런 관계는 P와 자기 자신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다. “P이기 때

56) 이재호 (2021), p. 120.

문에 P”가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설명이 어떤 신비스런 원초적인 형이상학적 의존의 구조와 일치하는 구조를 가져야 해서가 아니라, 그 문장이 단지 설명이라는 인간 활동이 요구하는 이해 산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이재호 교수는 또한 마지막으로 <때문에>와 설명 사이에 밀접한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이 (설명적이지 못한) “P이기 때문에 P” 형식의 문장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처럼 말한다.<sup>57)</sup> 그러나 <때문에>와 설명 사이에 밀접한 연결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둘 사이의 그 연결은 <때문에> 개념이 설명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설명(‘왜’-설명) 개념이 ‘왜’-질문에 대한 대답의 핵심 부분인 <때문에> 개념에 의존하고 있기에, 그 둘 사이에 밀접한 연결이 존재하게 된다. 설명 개념은 이에 덧붙여, 정보 전달, 이해가능성, 관심 적합성 등의 추가적 요소들을 핵심 요소들로 포함하게 되는데, 그런 추가적 요소들을 <때문에> 개념(그리고 그 개념과 관련된 진리 조건)에 역투사하는 것은, 두 개념 사이의 의존의 방향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사실 조건문을 통해 분석될 수 있는) 어떤 ‘때문에’-문장들이 설명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그 ‘때문에’-문장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참인 ‘때문에’-문장들이 적절한 설명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의 유용성 등 여러 화용론적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그런 문장들의 사례들은 <때문에>에 대한 반사실 조건문적 분석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 7.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이재호 교수와 한성일 교수가 반사실 조건문적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 제기한 반론들을 살펴보고 그 반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를 논의했다. 그 반론들은 흥미로운 쟁점들을 제기하지만 반사실 조건문적 <때문에> 이론에 치명적인 난점을 제기

57) 이재호 (2021), 같은 곳.

하지는 않는다.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이 설명의 정도를 허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오해이고,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은 비결정론적 설명, 대조적 설명 등 여러 사례에서 만족도의 정도 차이를 허용하고 잘 설명할 수 있다.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이 설명 문장의 지시적 투명성을 받아들인다는 주장도 오해이고, 필자의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은 설명 문장의 지시적 불투명성을 받아들이며 그 점에 있어서 설명 문장이 인과 문장과 다르다는 것을 수용한다. 선점 사례들 중에서 반사실 조건문적 <때문에> 이론에 일견 상충하는 직관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화용론적 조건, 인과 개념의 중의성, 피설명항의 중의성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한성일 교수가 선점 사례들이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사용한 몇 가지 원리들(“P이거나 Q이기 때문에 R이다”로부터 “P이기 때문에 R이거나, Q이기 때문에 R이다”를 추론하는 원리, “P 또는 Q이기 때문에 R”로부터 Q가 거짓일 경우 “P이기 때문에 R”를 추론하는 원리)이 부당한 반면, 필자가 선점 사례에 대한 직관적 호소에 사용했던 추론 원리(어차피-원리)는 우려와 달리 반직관적 귀결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P이기 때문에 P이다” 등 참인 반사실 조건문으로 분석되는 어떤 ‘때문에’-문장들이 받아들일 만하지 않은 경우들도 그 사례가 되는 문장들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설명으로서 부적절해서라는 등의 화용론적 설명 등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이재호 교수와 한성일 교수가 제기한 반론들 중에서 한성일 교수가 그의 논문의 후반부에서 제기한 형이상학적 설명과 관련된 반론은 분량의 제약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했으나(즉 분량의 제약이 **없었다**라면 본 논문에서 다룰 수 있었겠지만), 형이상학적 설명의 문제들만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도록 이후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 참고문헌

- 선우환 (2008), 「직설법 조건문은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가?」, 『철학적 분석』 18호, pp. 1-35.
- \_\_\_\_\_ (2020), 『때문에 - '때문에'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연구』, 아카넷.
- 이재호 (2021), 「단순 반사실적 의존성 “때문에” 이론과 설명 이론」, 『과학철학』 24권 3호, pp. 91-125.
- 한성일 (2021), 「설명적 유관성과 반사실적 의존성」 『과학철학』, 24권 3호, pp. 127-170.
- Bennett, J. (2002), *A Philosophical Guide to Conditionals*, Oxford: Clarendon Press.
- Collins, J., Hall, N. and Paul, L. A. (eds.) (2004),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Cambridge, Mass.: MIT Press.
- Hall, N. (2004), “Two Concepts of Causation”, in J. Collins, N. Hall and L. Paul (2004).
- Kim, J. (2011), *Philosophy of Mind* (3rd Edition), Westview Press.
- \_\_\_\_\_ (1973), “Causation”, *Journal of Philosophy*, 70.
- \_\_\_\_\_ (1986a), *Philosophical Papers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6b), “Causal Explanation”, in Lewis (1986a).
- Lipton, P. (1991),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1st Edition), Routledge.
- \_\_\_\_\_ (2004),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2nd Edition), Routledge.
- Salmon, W. (1971), *Statistical Explanation and Statistical Relevance*,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Woodward, J. (2003), *Making Things Happen: A Theory of Causal Expla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 투고일	2022. 02. 18
심사 완료일	2022. 03. 17
게재 확정일	2022. 03. 18

---

In Defense of a Counterfactual Theory of  
*Because*

Hwan Sunwoo

---

Professor Jaeho Lee and Professor Sungil Han recently published papers containing objections to a counterfactual theory of *because*, presented in my book. In this paper, I show that their objections, although they raise interesting questions, are not successful, and that many of the problems they raise are either due to some misunderstanding or can be fully embraced in my theory.

**Keywords:** because, counterfactual dependence, explanation, preemption, Jaeho Lee, Sungil Han